



〈제24회 KES '93 전시회〉

新가전 정보시대 개막

-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미래 예고 -

제 24회 한국전자전람회 (Korea Electronics Show)가 '93. 10. 9~10. 14일까지 KOEX에서 열렸다. 국내외 전자공업인들과 해외바이어, 일반관람객들이 대거 관람 명실공히 국제 전자전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전자산업의 풍요로운 한마당이 되었다.

본고는 사상 최대규모, 최대실적을 올리며 대성황리에 6일간의 행사를 마무리 지으며 분석한 한국전자전 결과이다.

1. 개황

지난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동안 한국 종합전시장(KOEX) 본관에서 상공자원부 주최, 본회 주관으로 제24회 한국전자전람회가 개최되었다.

금년으로 스물네번째를 맞이한 한국전자전은 국내외 산업환경의 악화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국내외 전자공업인들과 해외의 유력바이어 및 관련인사들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까지 포함하여 총 25만 6000여명이 참관하여 세계 7대 전자전의 명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10월 9일 개막식에는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안동선 국회 상공위원장, 박용도 대한무역진흥공사사장, 김영욱 생산기술연구원장, 홍성좌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상영 전자신문사장 등 귀빈과 전자업계에서는 강진구 본회 명예회장(삼성전자 회장), 조동식 인켈회장, 유원영 한국전자회장, H. BODT필립스전자 부회장, 김정덕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 그리고 본회의 한규완 상근부회장, 윤봉수 부회장(남성회장), 김순중 부회장(한국마벨 사장), 김완희 전회장 등이 참석하여 테이프커팅을 거행하였다.

개막식 직후 각계의 귀빈들은 본회 한규완 상근부회장의 전자전 개요 설명을 들은 후 1층의 A/V, 가전관과 특별전시코너인 정책자금 지원 개발제품관, 3층의 부품/소재, 산업용기기, 외국제품관과 PC주기관 및 소프트웨어 공동관 등을 차례로 관람하였다.

특히 이번 한국전자전은 동남아의 유명전자전과 일정이 연결되었고,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렸던 세계무역센터총회(WTCA) 등의 초대형 메머드 국제행사로 개최되어 주요 수출시장인 미주,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바이어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또한 관련기관 및 본회 협의회를 통한 공동전시로서 소프트웨어 공동관과 PC주기관 공동관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참가경비 절감과 개발제품의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정부정책자금에 의해 개발된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한데 전시한 정책자금지원 개발 제품관도 설치하여 국내에서의 판로확보는 물론 이미지 제고와 홍보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2. 출품동향

이번 한국전자전의 출품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규모면에서 17개국에서 450개사가 출품을 하였는데 국내는 317개사에 320종 71,000점, 외국은 133개사에 150종 16,000점으로 총 470종 87,000점이 전시되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제품동향을 크게 나누어보면

첫째, 신가전·정보시대의 개막을 예고하였

다.

‘꿈의 TV’로 불리는 HDTV 및 HDTV의 화상신호를 기록·재생 가능한 HD VCR과 미국과 일본의 HDTV 방송방식을 모두 수용한 HD Monitor 등 HDTV 관련제품과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를 한데 모아 통합한 멀티미디어, 즉 CD-I의 출현이 두드러져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신가전, 정보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게 되었다.

둘째, 엔고에 대비한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결실을 맺었다.

‘산업의 쌀’로 일컬어지는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첨단제품인 64M DRAM과 처리속도가 한층 빨라진 4M SRAM,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소자인 10.4" TFT LCD, 그리고 최근 전략수출 품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캠코더용 8mm MIG HEAD, 탄탈륨 솔리드 캐퍼시터, CCD 등이 개발되어 엔고에 대비한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의 기대로 그동안 전자산업계의 핵심부품 국산화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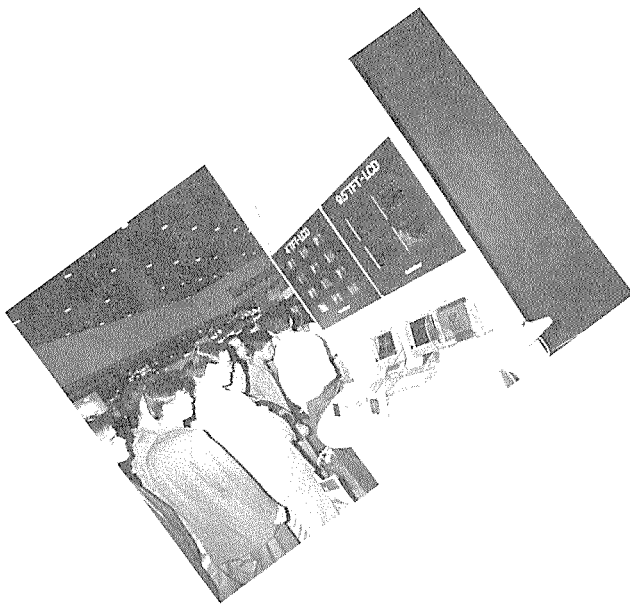
셋째, 환경 중시형 그린(Green) 전자제품의 출현이 시작되었다.

지구 오존층 보존을 위한 CFC(프레온가스) 대체 냉매(HFC-134) 채용 냉장고,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수거가 손쉬운 환경보호형 세탁기, 전자파 장애 감소 및 절전 효과가 뛰어난 그린 PC 및 그린 HDD, 소음을 대폭 감소시킨 최저해소음 진공청소기 등 다수의 환경중시형 그린 전자제품들이 등장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는 환경문제에의 슬기로운 대처가 돋보였다.

네째, 고기능, 고정밀 정보통신기기의 출현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퍼스널화와 휴대성이 강조된 초소형 및 고기능의 컴퓨터, 주변기기와 통신기기에도 초소형화가 급진전된 이동 통신기기와 다양한 보급형 팩시밀리, CATV 방송관련 기자재가 출품되어 기대를 받았다.

이러한 정보·통신기기의 개발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사회로의 실현이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전자전의 연도별 개최개요

항목	연도	1969년 제1회	1974년 제5회	1975년 제6회	1977년 제8회	1978년 제9회	1979년 제10회	1980년 제11회	1981년 제12회	1982년 제13회
기	간	11.18~ 11.25 (8일간)	11.26~ 12.3 (8일간)	10.8~ 10.25 (8일간)	10.18~ 10.25 (8일간)	10.11~ 10.18 (8일간)	10.25~ 10.4 (10일간)	10.7~ 10.16 (10일간)	10.14~ 10.20 (7일간)	10.29~ 11.5 (8일간)
장	소	국립 공보관	텍수 관석조	국공 장건물	충공 원전시	원의 도전시	원의 도전시	한국 종합전	한국 종합전	한국 종합전
규	모(坪) (S/M)	360 (1,118)	650 (2,145)	800 (2,640)	1,600 (5,280)	2,100 (6,930)	2,850 (9,045)	2,260 (7,475)	2,755 (9,100)	3,600 (11,880)
참	가	3개국 78업체	5개국 150업체	5개국 152업체	7개국 206업체	8개국 228업체	11개국 257업체	9개국 214업체	12개국 229업체	12개국 280업체
국	내	71	115	115	147	149	168	165	160	196
의	국	7	35	19	59	79	89	49	69	84
B / A	(%)	9	23	13	29	35	35	23	30	33
출	품	72종 20,600	291종 42,000	321종 42,000	360종 40,000	403종 54,000	355종 57,000	365종 59,000	390종 63,370	403종 68,100



1983년 제14회	1984년 제15회	1985년 제16회	1986년 제17회	1987년 제18회	1988년 제19회	1989년 제20회	1990년 제21회	1991년 제22회	1992년 제23회	1993년 제24회
10. 11~	10. 10~	10. 18~	10. 8~	10. 15~	10. 21~	10. 7~	10. 17~	10. 17~	10. 15~	10. 9~
12. 27 (7일간)	10. 14 (5일간)	10. 23 (6일간)	10. 13 (6일간)	10. 20 (6일간)	10. 26 (6일간)	10. 12 (6일간)	10. 22 (6일간)	10. 22 (6일간)	10. 20 (6일간)	10. 14 (6일간)
한국종합 전시장별관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	한국종합 전시장본관	한국종합 전시장본관	한국종합전시장 본관및별관	한국종합전시장 본관및별관	한국종합전시장 본관
5,400 (17,820)	4,000 (13,200)	4,600 (15,000)	4,770 (15,760)	4,770 (15,760)	4,920 (16,230)	6,284 (20,736)	6,300 (21,000)	8,550 (28,224)	8,550 (28,224)	6,284 (20,736)
12개국 330업체	14개국 380업체	14개국 445업체	15개국 460업체	15개국 465업체	18개국 475업체	15개국 475업체	19개국 520업체	19개국 573업체	16개국 530업체	17개국 450업체
220	210	244	262	246	272	292	314	335	335	317
109	170	201	198	201	203	228	211	238	195	133
33	45	45	43	43	43	44	40	42	37	42
415종 72,600	420종 72,000	430종 73,000	430종 73,000	440종 75,000	450종 77,000	460종 80,000	475종 82,000	480종 89,000	485종 90,000	470종 87,000

다섯째,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한국형 가전 제품의 독창적 개발이다.

소비자의 니즈를 조사하여 독창적인 기술 및 디자인 개발로 관심을 끌고 있는 물걸레 청소기, 공기방울 및 삶은 세탁기, 김치 냉장고, 딱배기 전자렌지 등의 한국형 가전제품들은 일반인 특히 주부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형 가전제품은 업계의 디자인 개발 능력을 재고시킴은 물론 세계적인 제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로 평가받고 있다.

여섯째, 유망 중소기업의 신개발품도 다양하게 출품되었다.

산·학 협동 및 정부의 중소기업 유망시책의 결실로 유망중소기업의 신제품들이 출품되었다. PC와 TV의 통합기능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보드와 대형 TV의 화면을 선명하게 하는 더블 포커스 팩, 수산분야의 어로작업과 관련한 수중 스피커 등이 개발 출품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외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 외국업체들도 다채로운 출품을 보였다. 휴대용 DCC 플레이어, 특수반도체, 정밀 부품 및 소재, 그리고 고정밀 계측기기 및 EMI장비 등 국내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었다.

3. 수출상담 및 관심품목 동향

가. 참관 바이어 현황

이번 한국전자전에 참관한 바이어들은 일본의 엔화가치 상승에 따라 수입선 전환을 모색하는 경향이 짙어 지난 해의 전자전람회 내방 바이어 5,000여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6,05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태국, 일본, 홍콩, 인도,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 바이어가 2,460명,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지역이 1,510명, 미국, 브라질,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미주지역이 1,408명, 터키, 이스라엘, UAE 등의 아프리카지역이 79명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 바이어 참관 현황을 보면 주 수출 시장인 미국이 선두, 일본은 경기침체로 대폭 감소한 반면 태국, 인도, 중국 등의 신흥전자산업국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10개국 바이어 내방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국가별 참관바이어 비교

(단위 : 명)

순위		'93 KEC	'92 KEC	
1	미국	935	미국	715
2	태국	492	일본	679
3	일본	489	홍콩	357
4	홍콩	314	태국	262
5	인도	260	대만	250
6	독일	218	독일	220
7	중국	212	싱가폴	203
8	이탈리아	209	이탈리아	185
9	대만	209	말레이시아	161
10	싱가폴	167	스페인	155

또한 지역별 바이어의 관심품목 동향을 살펴보면 미주지역은 품목 전반에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칼라 TV, VTR, 카 오디오기기 등의 가정용과 노트북 PC, 팩시밀리, 무선전화기, CD-I 등의 산업용과 반도체IC, 콘덴서, 스피커 등의 전자부품에 집중되었다. 유럽지역은 A/V 및 카 스테레오기기와 위성방송수신장치(SVR), 무선전화기, 계측기기 등과 IC, 센서, 콘덴서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 있는 중남미지역은 컴퓨터, 통신 및 계측기기에 집중되고 기후와 높은 생활수준의 중동지역은 냉장고, 에어컨과 SVR, HiFi오디오, HA기기, 팩시밀리 등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나. 수출상담동향

이번 한국전자전에서는 엔고로인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기술력 제고로 해외의 유력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열띤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지난해의 전자전 수출상담 실적인 11억\$에 비하여 5,000만\$이 증가한 11억 5000만\$로 수출상담실적이 집계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시장 운영도 관람시간을 개장하여 정오 12시까지 바이어전용 입장시간을 고수하여 쾌적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어 바이어는 물론 수출업체 관계자들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부문별·주요 품목별 수출상담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부분별 수출상담액 실적

(단위 : 천\$)

구 분	수출 상담액
총 계	1,149,955
가정용 소계	904,482
C-TV	595,059
컴포넌트 시스템	11,403
가오반주기	107,000
VCR	62,060
기타	24,960
산업용소계	219,599
위성방송 수신장치	49,327
노트북 PC	47,375
카폰	21,400
무선전화기	20,116
전자계측기	19,510
기타	61,871
전자부품소계	24,194
스피커	8,616
액정소자(LCD)	3,980
센서	1,546
기타	10,052
가정용전기 소계	1,680

특히 전자부품 중 전략수출품목인 반도체 IC는 세계적 품귀현상이 일고 있어 바이어의 상담요청이 있어도 상담을 감당할 수 없을 정

도의 물량부족으로 전자부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4. 부대행사 개최

이번 한국전자전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개최되었다. 먼저, 한·일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양국간의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주관으로 「한·일 전자기술 합동 세미나」가 전자전 기간중인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KOEX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동 세미나는 한·일 양측에서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일본측에서는 TDK, NEC, 마쓰시다, 후지쓰 등 업계 전문가와 와세다대, 주오대, 교토대, 오사카대 등의 학계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통신, 디스플레이, 센서, 컴퓨터 등의 관련부품의 설계기술, 시험기술, 신뢰성 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가 연이어져 국내의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기술 정보 수집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최신동향과 멕시코 투자설명회」를 본회의 전자산업 해외투자 협의회와 주한 멕시코 대사관 상무부가 공동으로 10월 12일 KOEX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NAFTA의 동향과 전망, 멕시코 전자산업 현황,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정책 등에 대한 설명과 멕시코에서 11개 전자업체 관련자가 참석하여 한·멕시코 기업간 개별 상담시간도 가져 합작투자나 기술이전, OEM 생산 등에 대하여 국내업계의 수출 및 해외투자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초만원을 이루면서 폭넓은 의견교환을 이루었다.

연도별 전자전 출품물 동향

回數	年度	特 色
1	1969	단일品種 展示會로서 國內 최대규모, 外國人投資업체 半導體素子 中心의 展示, TV 및 라디오의 중점적 展示.
2	1971	TV, 라디오 및 機構部品 중심의 展示.
3	1972	Color TV 최초 展示.
4	1973	컴퓨터 및 Color TV의 展示, 外國人업체의 대규모 出품, 國內 大企業의 신규 참여
5	1974	電子時計 展示, 교육용 CTR展示, 電子製品輸入原資材 展示
6	1975	Color TV, 민간휴대용무전기 등 海外需要急增品目的 중점 展示, 신모델 開發제품 (라디오, TV, 녹음기, 앰프 등)의 대량 出品, 産業用機器 出품 증대.
7	1976	컴퓨터 國內組立品, 금전등록기, CB트랜시버의 展示
8	1977	太陽電池應用機器, 컴퓨터應用裝備, 電子式 自動交振器 및 輸出有望 開發機器의 展示.
9	1978	産業用 機器의 중점 展示, 電子醫療機器 및 電子式 악기류 展示.
10	1979	輸出可能品目 계품의 고급화, 節電型 展示.
11	1980	半導體 및 컴퓨터 國產化제품, 通信機器, 고신뢰성 電子製品, 고유 모델 開發品目的의 展示.
12	1981	마이크로프로세서 應用 家庭用 電子機器의 展示, 오디오 및 비디오 製品의 機能多樣化, 半導體 및 컴퓨터開發 심화, 製品小形化 및 高價品에 주력, 部品の 原料 및 素材開發로 國產化率 향상.
13	1982	國內業體의 Computer 및 周邊機器 展示, 通信機器 본격 出품, 家電機器에 Microprocessor 응용 활발, 電子部品の 精密·高品質化 추세, 外國業體의 설비 및 電子交換機
14	1983	16Bit Computer 등 컴퓨터 機種의 본격 出품, 國產化의 급진전, 傭가 機種 출현, 光通信機器 및 DAD 등 展示, 超小型 VTR 개발 展示, 精密 部品の 輕薄短小 추세, Robot 機器의 본격 展示.
15	1984	Computer 및 주변기기의 高性能化, 응용 다양화, 高度화된 産業用機器의 신개발, VLSI級 半導體, 衛星放送 通信裝置 등 輸出 유망 New Media機器 및 '86年, '88年 Olympic 유망製品 展示.
16	1985	多機能 컴퓨터 및 대용량의 補助記憶裝置 등의 대거 出품, 高集積度 半導體 超精密部品·素材 개발, Olympic 有望 商品개발 展示, 輸出유망 高機能 家電機器, Laser 電子機器, OA, FA, HA 관련機器
17	1986	世界 최초의 4mm超小型 VTR-Camera+TV-體型, CD 및 CDP, 벽걸이 電子렌지, HA(Home Automation)제품의 Network소개, 32Bit 小型컴퓨터, 超音波 의료기기(단층촬영기), 光通信 및 計測機器, 無人倉庫管理시스템, 部品自動推入裝置개발, 國民 普及型 PC 40만원대 개발
18	1987	대용량컴퓨터, 最新 尖端通信機器 및 醫療用 기기 등 産業用 電子機器, 음성합성 VTR, DAT 등 고급 다양화된 家電製品 및 올림픽 유망상품, 1M DRAM, 복합회로 多層基板 등 輕薄端小화된 Chip型 部品素材, 最新 自動化 産業設備 및 精密計測機器, 高級 尖端部品 및 素材
19	1988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확대, 주변기기 확충, 産業用機器의 비중확대, 磁氣記錄用 酸化鐵 粉末 開發, CDP, Car Audio기기의 高級化, 高速 팩시밀리, 디지털 計測機器·試驗機器
20	1989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工場, 事務, 家事自動化시스템, 高集積 半導體, 高性能 컴퓨터 등 2000年代를 주도할 尖端 電子製品, 高宣明 大形TV, 캠코더, 디지털 오디오 등 뉴미디어 製品, 전자광해 검사장비 등 超精密 計測機器
21	1990	PC의 고성능화 및 초소형화, 컴퓨터를 이용한 가사자동화시스템 및 뉴미디어 기기, 영상기기의 다기능화 (문자다중) 및 고해상화(S-VHS VCR, 8mm캠코더), 光전자제품(光자기디스크, 포토, 커플러, 수광 및 발광소자, 포토 인터레터), 혁신적 소프트웨어제품(지문인식시스템), 자동화 및 고정밀 SMC 제품 등
22	1991	PC의 초소형화 및 고기능화(노트북형 PC 및 팜톱, 펜으로 입력하는 PC), 뉴미디어의 총아 CATV 광통신 시스템, 광케이블LAN, 음성인식 TV, VTR HA의 홈 서비스 로봇-온도, 습도, 침입, 추락방지, 경보감지 인공지능 또는 뉴로퍼지 채용 가전제품, 16MDRAM 전자과 장에대책 부품 자동계측제어장치 및 공장자동화 기기
23	1992	와이드 화면TV(16:9), 양면 재생 LDP, DCC, CD-1, 물결레 청소기, 김치 냉장고, 국산간이 쌍방향 CATV, 공장자동화 시스템, 노트북 및 펜 입력 PC, 수퍼VGA 모니터, 64MDRAM시작품, 12인치 TFT형 LCD, 수퍼 Flat Display, HDTV용 DY/FBT, 자동초음파 자동용접기, 정밀 계측제어장치,
24	1993	HDTV, HDVCR, HD Monitor, CD-I 등 멀티미디어기기, 64MDRAM, 32M Mask ROM, 10.4" TFT LCD, 5" STN LCD, Green PC, Green HDD, CFC 대체냉매 냉장고, 팜톱PC, G4팩시밀리, 물결레청소기, 김장독냉장고, S-VGA보드, 수중스피커, FAX 모뎀카드, 디지털 RF계측기기, 특수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등